

구원의 확신

1. 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한가?
 - 가.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다.
 - 나.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고, 입증하라고 하셨다(고후13:5).
 - 다. 만약 확신이 없다면,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이거나,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는 것이다.
2. 우리의 상태 (요5:24) - 완벽한 구원,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보장함
 - 가. 현재: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음
 - 나. 미래: 장차 정죄에 이르지 않음
 - 다. 과거: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. (수동태, 하나님이 옮기셨다)
3. 예화 1: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예화 (요10:28-29)
 - 가.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상황
 - 나. 물에 빠진 자는 “살려 달라”고 요청만 할 수 있음. 자기 자신을 건질 수 없음
 - 다. 건져주는 자는 구조 요청을 듣고, 그의 손을 잡고 끌어당김 (절대 놓으면 안 됨)
 - 라. 물에 빠진 자는 그의 손을 잡을 수도 있고, 놓을 수도 있다.
그러나 여전히 구조하는 사람과 연결된 상태
 - 마. 요10:28-29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,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.
아빠는 어린 아들과 걸을 때에는 손을 맞잡지 않고, 아이의 손목을 붙잡는다.
4. 예화 2: 가방의 예화
 - 가. 초등학교 입학할 때, 이모에게서 책가방을 선물로 받았다.
 - 나. 책가방 안에 노트와 필기구, 색연필, 연습장, 책받침 등이 들어있음
 - 다. 나는 가방만 받았으나, 가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갖게 됨
 - 라. 요1:12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음
 - 마. 계3:20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문을 열면 그분께서 들어오심
 - 바. 요일5:11-12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
 - 사.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언제 죽어도, 언제 예수님께서 오셔도 천국이 약속되어 있음.
5. 예화 3: KTX 열차의 예화
 - 가. 대전에서 부산행 열차를 탔다.
 - 나. 타고 가는 도중에 잠자는 사람, 책 읽는 사람, 열차 안에서 넘어진 사람도 있다. 그래도 열차는 이 모든 사람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.
 - 다. 내가 이 열차는 “광주”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, 의심하거나, 불안해해도 여전히 열차는 그 사람을 예정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.
 - 라. 나의 감정이나 기분 상태가 나의 구원을 좌우하지 못한다.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. 그러나 내가 열차를 맞게 탔다면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, 올바른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것은 100% 확실하다.
 - 마. 자신의 느낌, 경험으로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지 말고,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.
6. 예화 4: 왕자와 거지 예화 - 신분(position)의 변화와 상태(condition)의 변화
 - 가. 거지가 왕자와 옷을 바꾸어 입고 왕자가 되었으나, 그는 왕궁생활에서 오히려 불편을 느낀다. 음식도 손으로 집어먹고, 손 씻는 물을 마시고, 왕의 옥새로 호두를 까먹는다.
 - 나.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상태까지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는다.
 - 다.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, 그 후에는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.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,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다(벧전2:2).
 - 라. 그러므로 자신의 변화되지 않은 삶 때문에 낙심하거나 조급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.